

이웃

[맛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vol. 05

2019.8 | 원고개 마을소식지





원고개 픽(PICK)-“길”

(글: 구본녀, 사진: 조은정)

우리동네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원님길 향수길 산책길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계단길
계단 높이도 제각각 울퉁불퉁
위험하던 길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길로~

철로변 공원에 운동 다니는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멋진 포토존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까지
오가는 길에 들러서 꼭 둘러보시...길.



02 원고개마을 소식지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이야기

(원고정리: 구본녀)

2019년 2월,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고개마을 협동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진동 이사장님의 진행으로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1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2017년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고 2017년 11월 행복한 마을 만들기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모여 원고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카페인 “원고개 다락방”은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고, 주부 바리스타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개마을 협동조합은 총회 후 수입금 일부를 마을에 환원해야 한다는 정관에 의거하여 김진동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라면을 전달하기로 결정, 통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기공식 및 축하공연에 비산1동 원고개마을 주민협의체에서 먹거리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원고개다락방에서도 음료와 커피콩빵을 판매하였고 수익금 일부를 경로잔치 행사에 기부 하였습니다.



월간 원고개

1월



1월 6일

원고개마을 뮤지엄공사 주민설명회



1월 24일

민안망 설맞이 저소득층 후원



5월

4월 8일-4월 29일

마을동아리(업사이클링)

4월 6일-6월 29일

주민참여 마을대학 기초과정
(벽화장인양성교육)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5회차)

5월 17일-7월 19일

티브로드 대경방송
원고개다락방 취재

5월 21일

5월 10일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정나눔행사





비룡농악단 지신밟기

2월 14일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정기총회

2월 20일

2월

3월



원고개다락방 바리스타팀
웃놀이&음식나눔

3월 4일



4월 17일-6월 26일

원고개마을생활영어



4월 14일

원고개 음악단 봄 연주회

4월

3월 27일

자연보호 봄맞이 꽃심기



동네부엌
(함박스테이크 만들기)

6월 4일

원고개 음악단 경로당
연주재능기부

5월 25일

주민참여마을대학
기초과정 부산 영도견학

5월 31일

6월



원고개마을 동아리 비룡농악단 인터뷰

(인터뷰어-김영미, 우미화)



햇빛이 이글대는 6월 어느 정오시간, 주민자치센터 지하를 찾았다. 아래로 발을 내딛는 순간 들려오는 북소리가 심장을 울려댔다. 조심스레 문을 여니 뒷모습이 예쁜 10명 남짓의 언니들이 모듬북에 심취해 있었다. 냅다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였다. 짧은 연습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셔서 요즘말로 깜놀! 한참 폭 빠져 구경 하다가 몇마디 나누었다.

Q. 비룡농악단이라는 이름이 인상적이네요, 비룡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비룡 마을금고에서 처음 시작된 풍물팀이라 비룡풍물단이라고 했는데 뜻풀이대로라면 날아오르는 용처럼 멋진 풍물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2007년 4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0~12명 남짓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주로 50~60대로 구성되어있고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12시에 연습을 하고 있어요.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A. 지신밟기, 마을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에 늘 흥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Q. 아~, 연초에 지신밟기 하시는 게 큰 행사겠네요. 지신밟기의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A.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최고 수익을 올렸어요. 악기보수 비용이나 약간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경로잔치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고 있어요.



Q. 난타 연습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무척 배우고 싶었는데요, 난타 연습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었고 혹시 공연계획도 있나요?

A. 연습은 올해 3월부터 째째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어요. 가을 즈음에는 공연이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업타운핑크'와 친숙한 트로트인 '사랑의 밧데리' 2곡을 편집해서 연결한 곡을 연습중이에요.

"그럼 저희도 한 번 해 봐도 될까요?"라는 말에 선뜻 채를 내어주시네요. 그런데, 헉헉!! 녹록치 않네요^^

Q. 풍물 아닌 다른 것을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A. 다들 무엇이든 배우는 걸 좋아해서 드럼이나 설장구를 배운 분도 계시고, 서예, 기타, 댄스 등을 배우는 분들도 계시요. 뭐든 배우는 건 즐거운 일이지요.

Q. 활동하면서 좋은점, 어려운점이 있다면요?

A. 어려운 점은 별로 없구요, 하나 있다면 같이 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단합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흥미도 있습니다. 모이면 분위기가 좋아 매주 화,목요일이 기다려져요. 행사를 나갔을 때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꼬르륵~ 시장기를 느끼며 마지막으로 비산1동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청에 풍물 얘기보다 먼저 나온 얘기가 동네살이에 관한 것이었다. 경로잔치 때 힘들었다는 냇두리와 함께 1년 중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또한 시장 소방도로 확보, 하수구 정비, 시장의 활성화 등..... 동네에 관한 여러 우려와 걱정을 내 놓았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탄탄한 풍물패를 유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누구보다 더 비산 1동에 애정이 많고 동네일에 앞장 서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하는 내내 젊은 사람 못지 않는 언니들의 열정이 내심 부럽기까지했다.

*비룡농악단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네요

연습은 매주 화,목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저도 달려가고 싶어요~~^^

VITALBEAUTIE

아름 피부 시간을 새롭게
알란토-리포솜™
아미노제 스킨케어 라인

IOPE

원고개마을 Star

‘남정걸’씨를 만나다

(인터뷰어-임미영)



Q. 화장품 가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집안 식구가 화장품 가게를 하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를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식구 덕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Q. 원고개시장에 가게가 있으니 시장상인이기도 하신데요, 시장의 근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A. 아케이트 설치 전까지 시장은 오랫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하니 시장이 많이 변화한 것 같긴 합니다.

Q. 요즘 최대 관심사가 있으시다면요?

A. 아무래도 첫째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건강을 비롯해서 모든 게 걱정입니다. 둘째는 자식이 다 컸는데 취업이 안 되서 걱정, 셋째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게 문을 열어두어도 손님이 없어 걱정입니다. 정치가 시끄럽고 힘들어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하는 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심사를 얘기하라고 하니 걱정거리만 얘기하게 되네요.

Q. 요즘 우리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A. 우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애기 울음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애기는 살기가 좋다는 얘기니까요. 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에 노인이 많아서 노인인구가 서구 1등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건 1등이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원고개 시장에서 터를 잡고 계시는 터줏대감으로서 시장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A. 원고개시장은 서구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번잡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렴하고 정도 많지만 거래 물가가 너무 싸다고 모임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장으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원고개마을 이야기



구본녀 | 7동 지역 화재이후 마을에서 도움을 준 에피소드

지난 4월24일, 동네에 사는 저소득가구에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성금후원 등 민간사회 안전망과 각급 단체장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적십자에서는 후원물품도 전달해 주셨다고 하네요. 화재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정지우 | 길고양이가 11마리 새끼를 낳은 이야기

처량하게 길을 맴돌던 길고양이가 우리 집에 머문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다. 평범한 길고양이들과는 달리, 이 고양이에게는 '나비'라는 예쁜 이름이 있다. 그래서인지 경계심이 많은 길고양이들과는 달리 나비는 사람들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온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비에게 밥도 챙겨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추억을 하나씩 쌓았다. 그리고 가장 축복할 일은 나비가 어미 고양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보통 고양이는 네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나비는 새끼를 열한마리나 낳았고, 그 중 여덟 마리를 혼자서 살려냈다. 나비가 어미 역할을 멋지게 해 냈다.



조은정 | 베스트 병원 연주 봉사

5월 18일 원고개음악단이 베스트병원에 위문공연을 다녀왔습니다. 환우분들이 저희의 연주에 호응도 잘 해 주시고 잘 들었다고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병원 측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달아드리는 행사도 했습니다. 저희 연주가 환우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주하였습니다. 아주 뜻 깊은 공연이었어요~(조은정)



우화주 | 티브로드에서 다락방이 소개된 내용

“이곳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5월 22일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프로그램에서 비산1동 원고개마을을 소개하는 멘트입니다. 딱! 마침 이음 5호를 만들기 위한 편집회의도 진행 중이라 우리 편집위원님들의 예쁜 얼굴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방송을 놓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네이버에서 '티브로드 원고개마을'을 치시면 됩니다.)



박옥선 | 거창경로당 앞 벽화조성 소식

원고개 다락방 2층에서의 벽화수업을 시작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작업할 곳 몇 군데를 답사하고 선정했어요. 비산 1동 거창경로당 주변 담벼락이 선정되어, 매주 토요일 오전은 언제나 활기차고 즐거운 기운이 팍팍!! 험한 담벼락에 어느덧 밑그림이 그려지고 채색도 되고, 금 간 부분에는 고민을 거듭하며 정말 감쪽같은 위장술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어요. 그 덕분에 거창경로당 부근이 환해지고 화사하게 변신했답니다. 주민들의 노력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생동감 있는 예쁜 벽화를 만들어 냈어요.



우화주 | 텃밭소식

이런 곳에 텃밭이 있었다니! 다른 마을에서 손님이 오면 늘 둘러보고 자랑하는 도심텃밭을 아시나요? 우리 마을 8곳에 숨은 그림처럼 도심텃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4~6명이 구획을 지어 분양받아, 재미있게 농사를 짓고 이웃과 수확물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올 하반기에는 몇 군데 더 조성한다고 하니 소박한 농군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한 가지 더! 혹시 농사의 기회를 가지신다면, 무농약, no 비닐, 도시농부의 약속입니다.



구본녀 | 번개음악회

2019년 6월5일 북비산 초등학교 장미동산에서 번개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고학년의 리코더 연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파르롱'을 연주할 때 다들 노래를 따라 부르며 어깨춤까지~~~~ 뒤이은 순서는 원고개음악단 기타리스트 장창욱 관장님(효자태권도)을 부르는 아이들의 응원소리로 시작하였는데, 더운 날씨에도 '풍선' 노래를 따라 부르며 끝날 때까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번개음악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구본녀 / 햄버거스테이크 만들기

2019년 6월14일 선착순으로 15명을 신청 받아서 동네부엌 요리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네부엌이 아직 없는 관계로 다락방 2층에서 스테이크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사선생님은 따로 섭외하지 않고, 주부들의 평소 실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팀을 나누고 역할 분담도 하고, 햄박스테이크를 만들어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솜씨자랑도 하고, 사진도 찍고, 우아하게 시식도 하고, 뒷정리까지 다함께 똑딱!! 혼자하면 힘든 일이지만 다 함께하니 요리가 아닌 놀이가 되는 요리수업~!! 벌써 다음수업도 기대됩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소식



자율방법

(취재-문명경)

비산1동 우리 마을 교육나눔 자율 방법대 체험. 6월 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율방법대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북비산 초등학교 어린이 10여명과 교육나눔 청소년 운영단이 그 주인공!!

여러 자율방법대 대원 분들과 서부 경찰서에서 지원 나오신 경찰관 아저씨들, 북비산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찰관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힘든 기색 없이 씩씩하고 멋지게 임무를 수행해냈답니다~~ 순찰체험을 한 친구들 중에는 경찰관이 꿈인 친구도 있었어요~ 다양한 체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체험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비산1동 우리 마을 교육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취재-박옥선)

5월 3일, 북비산 초등학교에서 칭찬하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날 북비산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교육나눔 위원님들은 이른 아침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등교하는 친구들과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말로 함께 칭찬하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4월 22일에는 비봉 초등학교에서 칭찬하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비봉 초등학교는 언제나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분들, 그리고 교육나눔 위원님들이 함께 밝은 모습으로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연주봉사 (취재-우화주)

비산 1동 우리 마을 교육나눔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뜻 깊은 활동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악기 연주봉사를 하는 일인데요. 지난 5월에는 비산아파트 내에 있는 만수정과 당산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동안 연습한 악기를 연주하고 음식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로당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자주 오시는 어르신 숫자도 차이가 많지만 한결같은 건 아이들이 경로당에 들어섰을 때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눈길입니다. 아!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과 교육나눔 위원들이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일이 더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머니 마음'을 첫 곡으로 연주했는데, 평소 트로트 연주에 흥겹게 맞춰주시는 손박자도 좋았지만, 다소(?) 감회에 젖은 듯한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트로트 곡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까지 보여주시는 흥으로 화답해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잘 오시지 않는 어르신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사람 이야기

원고개 다락방의 정원사 박용순 (원고의뢰-조은정)



내가 심고 키우는 기와장의 야생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봉선화, 채송화, 장미 나무들이 땀별 아래서 묵말라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원고개 다락방의 마감 조, 박바리스타로 출근한다.

호스로 물을 주면서 꽃들과 나무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랑을 나눈다.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발길을 머물게 하고, 카페 손님들의 '예쁘다'는 감탄의 소리를 들으며,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힐링 하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마냥 즐겁다. 요즘은 가족, 친구들과 만남도 저버리고, 오로지 봄꽃, 여름꽃과 데이트를 한다~~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

원고개 마을 협의회 사업으로 원고개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다. 10명의 봉사정신을 가진 전문 바리스타들이 근무하고 있다. 커피 품질향상 판매팀, 환경·조경을 가꾸는 팀, 홍보팀, 각자 술선수범하여 스스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단합된 힘으로 하나가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서구청에서도 우수 모범카페로 인정받고 있다. 원고개 다락방 *화이팅****

나는 비산1동의 주민들과 서구의 구민들에게 소통의 장소로 '엄지척' 손꼽히는 비산1동의 '원고개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내일도, 모레도, 계속 주욱~~~~ 사계절 예쁜 꽃들이 피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다락방의 정원을 책임질 것이다. 원고개 다락방 많이 찾아주세요~~~♡♡♡

편집기

이음 편집후기

구본녀

아휴 힘들었어요~~~어쩌다보니 글재주도 없는 내가 많은 지면을 맡아서 이려고 있는지~~~ㅎㅎ 편집팀 회의할 때는 즐거웠고, 만남도 좋았기에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김영미

얼떨결에 발들인 이음 편집팀~!! 반갑게 맞아주신 팀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려요. 첫 인터뷰가 비산1동 풍물패 비용팀이어서 더더욱 뜻 깊었구요, 사람 냄새나는 비산1동 주민들과 함께여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문태경

편집팀 활동을 하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소식지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있네요~~힘은 들지만 보람도 느끼고~ 숨쉴는 없지만 글 쓰는 재미도 느끼게 되네요~ 다음회도 기대됩니다~ 우리 마을 소식지 편집팀 파이팅!!!

박옥선

편집팀!! 오~~ 제가 한10년만 젊어도 더 잘 할킨데...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편집팀 들어와서 글도 쓰고 편집도 하면서, 비산1동 우리 마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짜릿하고 신선하면서 즐거운 반년을 보낸 거 같아요~~ 마을소식지 편집팀 ~ 사랑합니다데이~~♡

유미화

학창시절이후 오랜만에 글을 쓰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 살짝 심쿵 했어요. 뒤늦게 소식지 편집팀에 합류해서 걱정도 있었지만, 기존 하시던 팀원들의 도움으로 재미나게 작업했어요. 동네를 다시 돌아보고 마을 사람들과 수도도 나누다보니, 비산1동에 애정 한 덩어리를 더 쏟게 됩니다... 다음호도 기대됩니다~~

유화주

주민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서 또 한 권의 마을소식지가 탄생하려나 봅니다. 좀 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읽히고 따스함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임미영

소식지 편집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항상 회의를 하지만 설레는 맘으로 하고 있어요. 넘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을 소식지 편집팀, 아자!아자! 핏팅이다.

조은정

편집팀을 하면서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더 알게 되고 매번 새로웠습니다~ 처음보다 글 쓰는 것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참 멀었네요~ 편집팀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희망 원(ONE)고개마을 소식지